

車부품산업에 14조 투입...미래차 시대로 '쾌속질주'

현대차 공동 연구개발 기금 조성·은행권 저리 대출상품 운영 등 하이브리드 이어 수소트럭도 취득세 감면...전기차 충전기 확충도 2030년까지 미래차 인력 3만명 양성...6대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미래차 핵심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입에도 정부와 완성차업체,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품업체에 14조3000억원 투입...2027년까지 미래차 200만대 국내 보급=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자동차 부품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체에 5조4000억원이,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포인트까지 대출이자율을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5조2000억원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해외 판로 확대와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를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을 이미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상태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대비 29%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전기차 27만대를 신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전기차 충전기도 지난해 19만기에서 오는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

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전문인력 양성...“올해 수출 800억달러 목표”=부품업체의 체질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스스템,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약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한다.

미래차 융합 학과과정을 현행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SW 특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역대 최대인 8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과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연합뉴스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직원들과 'Movie Day' 진행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22일 메가박스 광주하남점에서 '우수 직원과 함께하는 Movie Day'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한재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직원들과 영화 관람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항상 목표 달성과 경쟁의 틈 속에서 여유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변 직원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박내춘 본부장은 "지역민과 기업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테크노파크,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플랫폼 구축현황 등 설명회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진)는 지난 22일 광주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비R&D 사업이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7개 세부사업인 Post-BI, 스타트업, 선도기업, 수출초보, 투자생태계, AI+X 융합, 첫걸음 등 전주기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현황 및 지원 사업을 소개

했다.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기존의 7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선도 기업까지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합지원해 지역 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사업별 지원 금액은 차등지원된다.

김영진 원장은 "우리지역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첫걸음기업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강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전KDN, 미래전자와 수소에너지 ICT 기술 고도화 나서

ICT분야 기술 공유 등 협약 수소 인프라간 데이터 연계 시행

한전KDN은 지난 16일 ㈜미래전자와 '수소에너지 ICT분야 기술 및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KDN은 수소 에너지ICT 분야 기술고도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충전소 IoT 설비 및 POS(Point Of Sales)시스템 등 기술을 보

유한 미래전자와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동반상생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유승규 한전KDN 탄소중립처장과 정승원 미래전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별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경과를 설명하고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성실이행을 약속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전KDN과 미래전자는 협약을 통해 ▲수소에너지 ICT분야 사업·기술 정보공유 ▲솔루션 공동 개발 ▲국내·외 사업발굴 및 공동 수행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고도화를 약속했다. 양사는 스마트시범도시의 통합안전 운영센터와 수소 인프라간 데이터 연계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최근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 RE100 등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집중도가 필요한 현실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관련 솔루션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